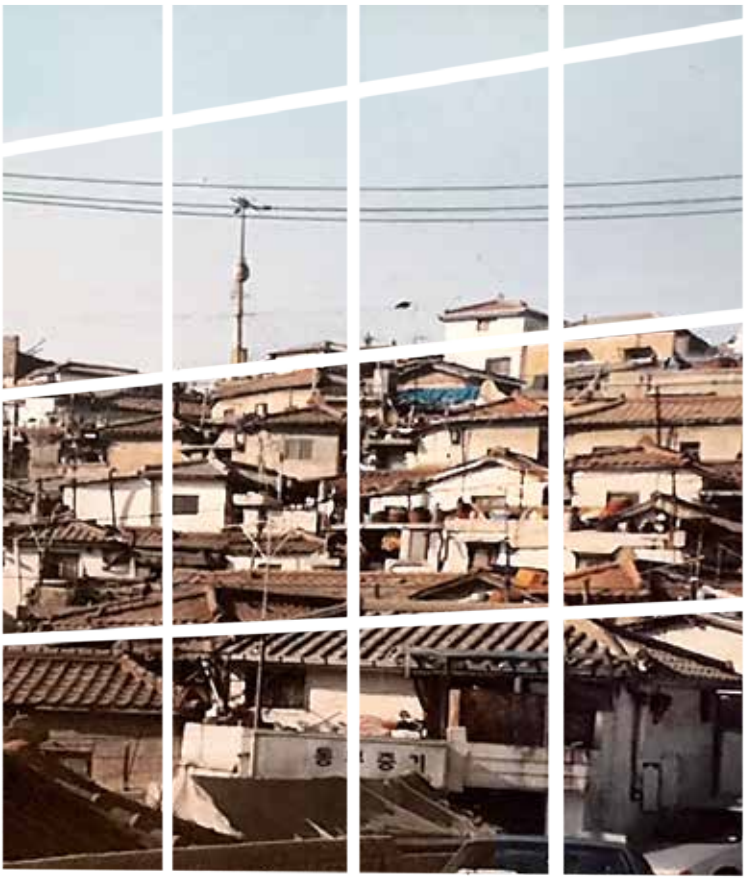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9

월곡동에서 50년
박두순 이야기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월곡동에서 50년, 박두순 이야기

월곡동에서 50년, 박두순 이야기

우성진·김세이·김은숙
양만철·오수현·유희나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9

월곡동에서 50년, 박두순 이야기

구술자 박두순

지은이 우성진·김세이·김은숙
양만철·오수현·유희나

엮은이 우성진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김영일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박두순 · 성북문화원, 2023

ISBN 979-11-985990-0-1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주민기록단 교육의 수강생 실습 결과물을 토대로
성북문화원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민기록단 교육

기획 강성봉
교육 오제연
운영 오진아·우성진

평범함 속 반짝이는 특별한 이야기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의 값진 노력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북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청과 함께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북의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는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이를 성북마을아카이브를 비롯한 유튜브, SNS, 전시 등 다양한 매체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은 공동체 아카이브라는 마을기록화 사업의 취지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6년간 주민기록단 교육 과정에서 100명에 육박하는 수료생이 배출되었고, 20여 분이 주민기록단으로 활약하며 숨어 있던 성북의 이야기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발행해 왔던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가 어느새 8권과 9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9라는 숫자는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기록단이 그간의 성취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활약을 이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구술생애사 책자의 주인공 두 분은 각각 장위동과 월곡동에서 살며 겪은 자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70년대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 어쩌면 우리 현대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보통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그 일상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분만의 특별한 경험과 역사가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모래 사이에서 반짝이는 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평범한 이야기 속 반짝이고 특별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구술사의 매력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당신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 우리에게 나눠주신 구술자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8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과 과제에 임해주신 주민기록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깊이 있는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아낌없이 강의에 쏟아주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무사히 교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성북문화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찾고, 기록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성북문화원 원장 김 영 일

토박이가 만든 성북, 이주민이 만든 성북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 일원이었던 사람들과 새로이 사회 일원으로 합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적인 대제국이 만들어지거나 문명이 확산할 때 이 같은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나 민족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나라와 민족이 융성하고, 반대로 폐쇄적인 나라와 민족은 결국 쇠퇴하는 모습 역시 역사에서 늘 반복됩니다.

지역의 역사야말로 토박이와 이주민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경우 1953년 6.25전쟁의 휴전이 이루어질 당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6년 만인 1959년에 2배, 즉 200만 명으로 증가한 뒤 1963년 300만 명, 1970년 500만 명, 1976년 700만 명, 1983년 900만 명을 거쳐 1988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의 급속한 팽창은 베이비붐과 같은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촌향도', 즉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구술해 주신 분은 박순자 님과 박두순 님입니다. 박순자 님은 경북에서 태어나 생활하시다가 결혼 후 가족들과 함께 장위동으로 이주 및 정착하셨습니다. 박두순 님은 충북에서 태어나 생활하시

다가 역시 결혼과 함께 월곡동으로 이주 및 정착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1970년대 전반기에 성북으로 이주하였으므로 성북에 정착한 지 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생애사는 이주민이 만든 장위동과 월곡동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 구술 채록집이 성북의 토박이 두 분을 다뤘던 만큼, 이번 책을 작년 책과 같이 읽으면 성북의 역사를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술을 허락해 주시고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순자, 박두순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술 채록집은 2023년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의 성과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주민들이 직접 성북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주민기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주민기록단 교육에 참여하여 구술사의 이론과 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매년 구술 채록집을 만들어 냅니다. 특히 이번 2023년 주민기록단 교육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집중도가 높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주신 주민기록단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주민기록단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애 써주신 성북문화원 오진아, 우성진 선생님께도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 제 연

머 리 말

월곡동은 지금의 하월곡동에 있는 천장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그 산 근방에 있는 마을을 다릿골이라고 부르는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동대문 밖을 나와 중랑·강원 방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과거부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지만, 산지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척박하였던 월곡동은 삶의 애환이 많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서울에 편입되기 전 월곡동은 율곡, 모래마을, 밤골, 배나무골 등 마을 이름만 들어도 참 정겨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곡동은 1970~80년대에 염색공장, 피혁공장, 작은 상가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예전 모습이 사라지고 재개발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이번 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두순 님도 이 시기에 월곡동에 이주해 오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 산동네였던 월곡동에 들어와 살게 된 이야기는 월곡동의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주민기록단 분들과 함께한 인터뷰를 통해 월곡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두순 님의 구술 내용에 따라 '1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2부 월곡동에 산 지가 50년', '3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4부 살다 보니까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거죠', '5부 참 살기 좋아졌어' 총 5부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구술자의 출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고향

이 서울이 아님에도 서울에 올라오게 된 이유와 과거 살던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을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고향을 떠나와 서울로 자리 잡으면서 월곡동에 오게 된 이유와 월곡동의 첫인상 등 본격적인 서울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올라와 서울살이를 시작한 구술자의 눈에 월곡동은 어떤 곳이었는지 그 생각을 담았습니다.

3부에서는 1970~80년대 월곡동에 생겨난 공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술자가 직접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들을 비추어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당시 공장 근로자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동네를 위해 일했던 구술자의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다양한 모임들과 통장까지 역임하며 월곡동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구술자의 모습을 통해 월곡동을 사랑하는 마음과 활동들을 담았습니다.

5부에서는 월곡동의 변화를 돌이켜보며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와 구술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인 월곡동에서 50년 가까이 살며 변화의 순간들과 느낀 점을 구술해주신 박두순 님을 통해 월곡동의 과거와 현재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우 성 진

차 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0
약력 15

1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7**
그리운 고향 충청도 19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다 23
군대에 입대하다 24

2부 월곡동에 산 지가 50년 **29**
고향을 떠나 서울로 31
월곡동에서 다시 출발 33
월곡동 동네살이 38

3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45**
피혁공장에서 가죽 일을 했어요 47
여러 일을 다 해봤죠 55

4부 살다 보니까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거죠 **57**
월곡4동 13통 통장 59
봉사하는 정신으로 했어요 65
사람도 좋고 모임도 좋고 69

5부 참 살기 좋아졌어 **71**
달동네에서 아파트로 73
월곡동 재개발 이야기 75
인생을 돌이켜 보며 81

에필로그 83
이미지 출처 86

약력

1951년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305번지
	2남 1녀중 막내로 출생
1972년	고향에서 살다 군입대
1975년	8월 군대 전역, 사모님과 첫 만남
	11월 서울 상경
1976년	피혁공장(성우통상) 취업
	아들을 낳음
1977년	월곡동 내에서 처음으로 이사
1979년	딸을 낳음, 조광피혁으로 이직
1981년	조광피혁 퇴직
1980~90년대	야채, 수산물 장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짐
1990년	월곡4동 13통 통장으로 취임
1992년	방재단 가입
2003년	현재 거주지로 이사, 통장 퇴임
2011년	관공서 근로자 취업
2021년	자치위원회 생활환경 분과장 임명

면담정보

사전면담
면 담 자: 우성진, 오진아
면담장소: 성북구 오패산로 55
면담일자: 2023년 8월 18일

1차면담
면 담 자: 우성진, 백승민
면담장소: 성북구 하늘한마당 공원
면담일자: 2023년 8월 29일

2차면담
면 담 자: 우성진, 김세이, 김현숙, 양만철, 오수현, 유희나
면담장소: 성북문화원 2층
면담일자: 2023년 9월 25일

1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리운 고향 충청도

● 고향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고향은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1] 호죽리 305번지에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내고, 22살에 군대 가기 전까지 고향에서 지냈어요. 초등학교는 처음에는 금계국민학교[2] 라고 옥산면에 있는 거. 거기에 들어가서 3학년 때 가좌국민학교[3] 로 전학을

1) 옥산면은 청주시 흥덕구 북쪽에 위치하여 동남쪽은 금강 상류인 미호강이 가로지르고, 북서남쪽으로 천수천이 관통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호천변의 비교적 평야지역으로 미질이 뛰어난 벼농사를 비롯하여 방울토마토, 수박, 애호박, 오이 등 시설원예와 낙농이 일찍이 발달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풍요로운 농업면이며,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청주역이 인접한 교통요충지다. 1946년 6월 1일에 청원군 옥산면으로 지정되었다가, 2014년 7월 1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으로 변경되었다. (출처 : 두산백과)

2) 옥산초등학교 호죽분교,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금계리 소재, 1943년 개교하여 1985년 옥산국민학교 금계분교장으로 격하, 1999년 폐교되었다. (출처 : 충청북도교육청)

3)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가좌리 소재, 1941년 개교하여 1996년 가좌초등학교로 개칭, 2008년 오창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다. (출처 : 충청북도교육청)

가서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1954년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 위성사진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기도 했었죠. 우리 형제는 누나 하나에 형 하나,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하고 누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고, 뭐 같이 한자리에서 같이 밥 먹은 기억도 몇 번 나지를 않네요. 형은 어려서 학교 간다고 청주에 나가서 자취해서 살고 했으니까… 형하고 9살 차이, 누나하고는 12살 차이가 나니까요. 누님이 나를 엄마처럼 키웠다고 봐야지.

● 고향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국민학교 동창들과 진짜로 뭐 팬티만 입고 그냥 냇가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었죠. 그 친구들하고는 아직도 연락도 하고 합니다. 한창때는 모임도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고 나서는 예전처럼은 못 만났네요.

국민학교 다닐 때 폭이 한 150m 정도 되는 넓은 강이 있었는데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마가 오면 물이 많이 불어서 학교를 등·하교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 고종사촌 누나가 우리 담당 교사였는데 누나가 손을 잡아주고, 그 밑에 학생들이 차례로 손을 잡고 건너고 했었죠. 그렇게 다니다가 부모들이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걱정도 되고. 학교도 자주 빠지고. 그래서 3학년 때 전학을 가기도 했죠.

● 성인이 된 후에 고향을 가시거나, 앞으로 고향을 가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있는데 잘 못 가는 편이죠. 워낙 생업에 바쁘게 살고, 직장에 너무나 일이 바빠서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고향이 여태껏 생각나고 친구들도 생각나고, 연락도 하고 싶고 참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옛날 풍경도 생각나고 가족들도 생각이 나고요. 나 살던 고향이니까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다

● 학창 시절에 대해 더 말해 주실 수 있나요?

국민학교 시절 이후로 중학교 진학하고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어요.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황도 많이 하고요, 질서 없이 컸지.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으면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교도 나오고 열심히 공부도 했을 텐데. 후회되기도 하고 참 아쉽기도 하죠, 그런 점들이.

● 청소년 시기에 많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때는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죠. 워낙 개구지게 커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나보다 덩치가 크든, 나이가 많든 그냥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황도 많이 하고 이를테면 싸움 같은 거요. 운동도 많이 하고요. 지금도 제가 유도 운동을 해서 덩치도 있고요.

● 학창 시절의 행동들이 많이 후회가 되시나 봐요.

그렇죠. 부모님 속 썩였다고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훌륭한 아들의 모습만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만큼 속을 많이 썩였다는 거니까. 아버지에게 참 많이 죄송하죠.

● 질풍노도의 시기는 언제쯤 끝이 나셨나요?

학창 시절에는 감정적이고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어지니까 계속 나쁜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성인이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살아서는 뭐도 안 되겠다. 사실 어릴 때는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성인이 돼서 자유를 좀 얻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 잡고 사람 대우받고 사는 것을 원했지요.

군대에 입대하다

● 그러고 군대에 가신 건가요?

방황하던 시절에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되겠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22살[4]에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굴레를 끊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방위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방위 말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걸 선택했어요. 좀 인간답게 변하고 싶어서.

4) 1972년 입대

● 군대를 20살에 안 가시고 22살에 가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도 내가 좀 늦게 갔어요. 생일이 늦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영장이 늦게 나왔지요. 내가 군대 갈 때 동창들은 이미 이병이었으니까 내가 한참 늦게 간 거죠.

● 방위로 빠지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 팔을 보시면 살짝 휘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끼리 벽에 이렇게 기대고 밀어내기 이런 놀이들을 하는데 장난으로 그거를 하다가 한 놈이 다리를 잡아당기다가 넘어져서 팔을 접질린 거죠. 그러고 팔을 맞추는데 이게 힘으로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뼈가 안 맞아서 지금까지도 팔이 살짝 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사유가 다 보충역으로 갈 수 있는 사유였거든요. “내가 팔이 이래서 힘을 못 쓴다.” 이렇게 하면 방위로 빠질 수 있었죠. 근데 군대 가서 사람이 돼서 나와야겠다. 당시에는 술도 많이 먹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치고 싶어서 ‘사람 한 번 돼보자.’ 해서 이제 현역으로 군대를 가게 된 거죠.

● 군대 생활은 어디서 하셨나요?

군대는 20사단[5]에서 발령받고 생활했습니다. 전곡에 사단사령부가 있었고, 제일 처음 군 생활은 연천군 지나서 신병 때 근무지는 신방리에서 근무하다가 GOP를 들어가서 생활했고, 거기서 나와서 신탄리. 신탄리가 옛날에는 경원선 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6중대에서 제대를 했죠. 예비사 나오는 데까지 총 36개월간 군 생활을 했어요.

● 군대 생활하시면서 기억나시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아유 엄청 추웠던 기억. 그리고 155마일 휴전선에서 근무한 거요. 이제 거기서는 추우니까 이 총 들고 제자리 뛰기를 계속했어요. 철조망 밑에 참호(塹壕)[6]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근무자들이 서서 제자리 뛰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무를 서야 하니까. 그땐 또 시계도 없어서 밤하늘 별을 보고 시간을 대충 알고 그랬죠. 그러고 GOP 철책선 안에 고라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고라니가 울으면 꼭 그냥 아주 기분 나쁘게 아기 우는소리같이 꽥~꽥하고 울어요. 그런 거 하고 한겨울에 밀어내기로 근무를 서는데 10분간 따뜻한 곳에서 쉴 때, 그 기억들이 나고 아직도 참 춥고 힘들었구나. 생각이 들어. 고생 많이 했죠. 보병으로 가서.

---

5) 당시 20사단은 경기도 연천에 있었던 부대로 최전방 부대였다. 2019년 11월 29일 제11기계화보병사단으로 통폐합되면서 부대가 해체되었다.

6)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시설

군생활 당시 사진

● 또 다른 기억나는 건 없나요?

있죠. 군대 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정정하시고 했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첫 휴가를 8개월 만에 갔을 때 아버지를 봤는데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러고 부대에 복귀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전경으로 군 생활하는 조카의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 사망 소식을 알았어요. 저는 휴가 복귀하고 GOP에 있어서 바로 가보지를 못하고, 중대장님에게 건의해서 휴가 순번을 앞당겨 받을 수 있었어서 그제서야 휴가를 일찍 당겨 받아서 나가서 고향에 갔었죠. 그 기억들이 참 마음에 남고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에게 참

죄송하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나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 전역 전까지 참 힘드셨겠어요.

군대 생활도 힘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죠. 휴가 끝나고 부대 다시 돌아와서 얼마 못 살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조카 되는 애가 전경으로 제주도 공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조카가 편지를 해줘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게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마지막 순간을 못 본 게 지금도 많이 아프고 한이 돼요. 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다는데, 그걸 못 들어서.

2부

월곡동에 산 지가 50년

고향을 떠나 서울로

● 군대 전역하시고 서울에 오신 건가요?

1975년 11월쯤에 왔어요. 8월쯤에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집사람하고 만난 후에 올라왔죠. 집사람하고 1975년 8월쯤에 만났으니까요. 그러고 3개월 정도 있다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됐습니다.

● 군대를 전역하시고 바로네요. 계기가 있으실까요?

집에 농사 거리는 있는데 전역하고 나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도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갔고, 어디다 의지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나보고 "네 농사 거리를 가지고 다른 집에 머슴으로 가서 살아라, 농사도 짓고 거기서 머슴 살으면 돈도 받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너무 속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는 일꾼을 2명씩 쓰고 했는데…. 다른 동네 사람들 눈에는 저놈이 잘 살더니 이제 망해서 저기서 머슴 한다는 그런 손가락질 받기가 싫어서 갖고 있던 논 5마지기를 아는 형님한테 그냥 당시 쌀 30가마를 받고 전세 놓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 당시에 그 돈이 어깨에 메는 가방에 꽉 찼었던 기억이 나네요.

● 서울에는 혼자 오신 건가요?

아뇨. 집사람하고 같이 올라왔죠. 집사람하고는 8월쯤 만나서 계속 알고 지내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된 거죠.

부부사진

● 사모님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우리 누나가 얘기를 해서 중매로 만났죠. 서울에 올라올 때도 처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누가 뭐 다른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 처형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와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월곡동에서 다시 출발

● 월곡동으로 오신 이유가 있나요?

고향 빼고는 연고지가 없으니까요. 안사람이 "처형이 서울 월곡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 동네로 가자." 고 해가지고 월곡동에 오게 된 거죠. 우리 처형도 월곡동에서 산동네에서 집을 지어서 살았거든요.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도 몸이 아파. 고생하기도 하고요.

● 처형 가족들은 원래 서울에 살고 계셨나요?

아니죠. 우리보다 먼저 올라와서 살았던 거고요. 우리 동서는 또 '해외섬유'라고 거기 염색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오래됐으니까 올라온 지가 꽤 됐죠. 산동네에 줄을 쳐놓고 터를 닦아놓고, 줄을 이렇게 닦아놓으면 그 당시에는 내 땅이라고 하면 자기 땅이니까요. 그렇게 정해놓고 벽돌을 날라서 집을 지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오기 한 몇 년 전부터 이미 와서 살았어요. 거기는.

● 처형 분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거기는 아들 둘에다가 딸 둘. 제일 큰 애만 낳고 서울 올라와서 다 낳았죠. 그때는 방수천 덮은 누삥집(루핑집)에서 다들 살았으니 그런 집에서 애를 낳아서 키운 거죠. 비 막아주는 방수천 있잖아요. 안에 시커먼 거.

● 서울 처음 오실 때 이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쌀 30가마 판 돈을 집사람 메는 빨간 가방에 가득 채워서 서울에 올라와서 그 돈으로 살림을 차렸죠. 고향에서 들고 온 것이 별로 없어요. 몸만 온 거죠. 뭐 살 거 사고, 처남이 좀 도와주고 장농 같은 것은 큰 처형이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살림을 도와주고 해서 이제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 처음 월곡동 오셨을 때 기억이 나세요?

나지요. 처음 전세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15만 원이었어요. 방 한 칸에 신발 벗고 올라가는 곳인데 신발도 그냥 밑에다 대충 넣고 올라가는 그런 집이었죠. 거기에 연탄아궁이가 있어서 거기다가 냄비 놓고 밥해 먹고요, 두꺼비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거 덮어놓는 거. 그게 불길이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집에 살았죠. 연탄도 쓰고 하니까 연탄가스 먹기도 하고, 그런 집.

월곡1동 전경(1990년대)

● 동네 분위기는 어땠나요?

분위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참 오래 살면 애들 교육상 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중간에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 정도 들고,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전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월곡동이 발전을 해서 이제 쉽게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여기가 제2의 고향이죠, 고향. 고향보다 여기를 훨씬 오래 살기도 했으니.

● 자녀분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아니에요. 그때는 참 먹고 사느라 바빠서 신경을 오히려 많이 못 써줬죠. 그냥 월곡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산동네이고 환경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교육에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집사람은 집에서 애들하고 있어줘야 하고, 저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교육에 잘 신경도 못써주고요. 애들한테는 그런 점들이 미안하긴 하죠. 그래도 우리 애들이 참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큰 애는 좋은 회사 다니고. 딸도 잘 살고 있고. 큰 애가 대학교 갈 때 재수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능력이 안되니까 그냥 대학에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지금 잘 돼서 잘 살고 있는 거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 첫 집이 어디쯤인지 기억나세요?

첫 집 옆이 바로 개천이었어요. 월곡천.[7] 삼양라면 본사 앞쪽으로 해서 그 장애인 복지관. 그 앞에 흐르는 개천이 있었는데, 거기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저희 집이 있었죠. 그 골목에.

1975년 월곡동 항공사진

7) 성북구 삼각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미아동 · 하월곡동을 거쳐 화랑교 아래에서 정릉천으로 흘러가는 하천으로서, 다릿굴내라고도 하였다. 길이 2,730m의 물줄기가 지금은 완전히 복개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하천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하였다.
(출처 :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역사편찬원)

● 첫 집에서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그 당시 개천이 바로 옆에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역류(逆流)가 돼가지고 막 물난리가 나고 그랬죠. 그 당시는 물이 좋은 물이 아니었어요. 하수 처리가 잘 안되고 뭐 우수와 가정집 하수였죠. 그것들이 흘러서 내려가기 때문에 물이 안 좋았고, 쓸 수 없는 개울물. 그래서 오동공원[8]에서, 옛날부터 그 안에 계곡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일요일 같을 때 빨랫감을 들고 가서, 빨래를 해서 널어놓고서 마를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르면 걷어서 내려오고 그런 생활을 했었죠.

● 그 시기에 첫째 아드님이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1976년 출생이니까 맞네요. 딸이 1979년생이고. 서울에 올라오고 얼마 안 있다가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이제 처음 서울에 올라오고 낯선 곳에서 자식도 태어나고 하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죠. 일도 시작해야 했고. 그래서 막노동도 하고, 공장을 수소문해다가 공장에 일하기도 하고요.

8) 성북구 화랑로13길 144,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에 걸쳐 있으며 강북 번동, 미아동외 5개 동과 성북구 월곡동에 걸쳐 있는 대단위 공원으로 수림이 잘 형성되어 있다. 오동공원은 쉼터와 구민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황토지압 보도, 산책로 등을 두루 갖추고 구민의 쉼터로 자리 잡아 인근 주택단지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월곡동 이주 시절의 가족사진

월곡동 동네살이

● **혹시 월곡동 역사나 살던 곳의 재미있는 이야기 아시는 건 있으세요?**

제가 살던 월곡4동 산2번지 일대가 원래는 배재학당 땅인데, 정부에서 산동리 산2번지 일대가 집들 밀집지역이라 소방도로를 내주면 배재학당 땅을 불하 해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배재학당에서 도로를 확장 소방도로 내주고 그 지분을 개인한테 불하해줘서 내주게 된 것이죠.

● **당시에는 선생님처럼 외부에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나요?**

젊을 때는 그런 걸 아예 몰랐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당시에 돈도 없고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동네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또 나는 여기 원래 주민이 아니고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몰랐지 뭐. 주변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를.

● **아까 오동공원에서 빨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물 같은 것도 길어서 드셨나요?**

길어 먹지는 않고, 수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공용 수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수도를 설치한 곳에 돈을 주고 물을 5원이면 5원. 이런 식으로 사서 오고 그랬죠. 수도가 지금처럼 각 집마다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을 사서 빨래할 수가 없으니까 저쪽 골짜기 가서 빨래도 하고, 그랬던 거죠. 예전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각 집에 수도를 설치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먼저 수도를 설치한 그 집에 얘기해서 수도세를 우리가 내고 가까이서 물을 고무호스로 끌어다 사용하기 시작했죠. 공용 수도처럼 멀리 갈 필요 없이. 집주인은 수도세를 안 내서 좋고, 우리는 멀리 물 길어 먹으러 갈 필요가 없어서. 서로 좋았죠. 처음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집에 설치는 안 하고 설치한 집에 가서 돈을 내고 고무호스로 연결해서 받아먹은 거죠. 수도 요금 지로용지 나오면, 예를 들어 수도 요금이 10만 원이면 물 대먹는 집들 가족 수를 나누기로 해

서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죠. 한 집만 대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 3집씩 대 먹으니까요.

● 겨울철에 난방은 어떻게 하셨어요?

연탄이죠. 연탄보일러. 물통을 달아놓고 연탄을 때면 방에 물이 돌아 가지고 방이 점점 따뜻해지는 그런 구조였죠. 그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도둑이 많았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자면 도둑이 긴 막대기 같은 거를 써서 걸려있는 옷을 가져가서 그 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기도 하고, 귀중품 같은 걸 빼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문을 닫고 자면 연탄가스를 먹으니까. 가끔 도둑 때문에 문을 닫고 자면 연탄가스를 맡아가지고 막 정신이 멍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 당시에 동네에 도둑이 있었나요?

그렇다니까요. 예전에 살던 집이 골목이 좀 컸는데 거기에 한 2, 3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도둑놈들이 웃긴 게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내리막길로 막 뛰어가다가 평지가 나오면 걸어요. 자기가 안 했다는 거죠. 태연하게 걸어간다니까. 도둑질할 때도 우리는 벽 쪽 문이 있는 쪽에 머리를 두고 자면 미닫이문을 살살 열어서 그거를 열고 도둑질을 하는 거야. 아까처럼 창문에 막대기를 넣기도 하고. 이제 잠귀가 밝은 사람들은 깨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지. 우리 집사람도 한 번은 쥐인 줄 알고 쳐다봤는데

문이 살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깜짝 놀라서 깨기도 하고 그랬죠. 막 옷이 공중에 붕 떠있기도 하고. 그러니 창문을 다 잠그고 자야 하는데 연탄보일러라 연탄가스를 먹으니 잠그기도 그렇고. 참 그랬었죠. 그때는. 빨래를 널어놓으면 청바지 같은 거 널어놓고 하면 청바지도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걸어놓은 걸.

● 비 많이 올 때 기억은 나시나요? 개천 근처에 사셨으면 물이 넘치기도 했나요?

동네가 워낙 높으니까 잠길 일은 없었죠. 잠길 일은 없는데 비만 오면 사람들이 화장실이 그 당시에는 푸세식이잖아요. 그거 퍼서 하수구에다 퍼붓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비 많이 올 때. 그러면 이제 그게 비 올 때 다 떠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화장실을 막 푸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어떤 집은 아주 화장실을 갖다가 하수구하고 같이 연결시켜놓기도 하고요. 풀 때 돈이 들어가니까. 참 그랬었지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죠.

● 당시 동네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어땠나요?

지하철이 없을 때는 버스를 다 타고 다녔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숭곡중학교 있는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쌍문동이나 도봉동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도 하고 거기 건너가서 타면 이제 시내 쪽으로 가는 거였죠. 고대 쪽으로 올라가는 곳은 시내 쪽으로,

나가는 곳은 성가병원[9] 앞에서 탔고요. 집이 거기서 멀지가 않아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교통은 잘돼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 당시에는 그 길이 되게 큰 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하철도 뚫리고 해서 길이 막 이리저리 났지만 예전엔 그 길로 많이 다녔으니까요. 지금도 물론 큰 길이긴 하지만요.

승곡중학교 근처 경관

● 월곡동 내에서도 이사를 하셨나요?

많이 했죠. 월곡동 내에서만 5~6번? 아니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 정도로 많이 했던거 같아요. 처음 전셋집에서 시작해서 계약기간 끝나면 방세 올려달라고 그러고, 다른 집 가서 살다가 또 방세 올려달라 그러고. 계속 반복을 했죠. 예전에는 또

9) 성가복지병원(성북구 종암로 191)

처형 집에 같이 살기도 했었어요. 당시 월곡4동이라고 부르는 여기 밑에서만 계속 뺑뺑뺑 돌면서 이사를 다녔죠. 그러다 한 1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월곡동에서 내 집을 갖게 된 거죠.

● 그게 몇 살 정도 되셨을 때인가요?

그게 50대. 그전까지는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그때 돼서야 돈을 모아서 자가로 내 집을 마련해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재개발이 됐어요.

● 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전에는 저 위쪽에 영광교회로 가는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저 밑까지 밤나무골 시장[10]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축협은행 앞길에서 신협 앞까지 시장 골목으로 형성돼 있었어요. 지금이야 도로가 크게 생겨서 밤나무골 시장이라 부르기도 애매할 만큼 시장이 작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엄청 컸죠. 그래서 길 안쪽에는 건물이 있어서 건물 주인이 가게를 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길가에는 리어카, 그리고 노점상들이 쭉 서서 자기가 물건 해온걸 팔고. 가운데로만 두 줄 양방향으로 사람이 이렇게 쭉 지나다니면서 이쪽 물건도 사고, 저쪽 물건도 사고, 물건을 사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그 가운데 길이 너무 좁게 느껴질 정도로 사람이 많

10)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5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재래시장으로 오패산로 보도 아래 반지하에 형성된 약 131m 규모의 골목 시장이다. 천장이 낮고 폭이 좁은 골목 사이로 형성된 시장은 5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옆으로는 재개발되어 신축된 새 아파트 단지와 신축 상가들이 대조를 이룬다.

았어요. 지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길을 지나가는 데 1시간 걸리다시피 했으니까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서로 비켜 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월곡4동 김장시장(1990)

● 시장은 선생님이 상경하시기 전부터 있었나요?

그렇죠. 이미 형성이 돼 있었죠.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해도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시장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한참 컸다가 재개발 이후에 도로도 확장시키고, 하다 보니 점점 공간이 줄어들고 장사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처럼 좁아지고, 장사할 공간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다 철거하고 2차선 도로가 생기고 120번 버스, 10번 마을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 다 그만두고 다른 데서 뭐 일하는지…. 요즘은 마트를 많이 가긴 가죠. 그래도 또 생선 같은 거 살 때는 밤나무골 굴다리 시장을 가기도 해요.

3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피혁공장에서 가죽 일을 했어요

● 월곡동에 처음 올라오자마자 일을 하셨나요?

예전에는 막일, 막노동[11]을 하더라도 누가 추천을 해줘야 하고 누가 데리고 가서 해야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일자리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일자리 찾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백기가 조금 있었죠. 1년 정도. 한 날은 이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어디 공사장 있길래 "아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며칠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군인정신으로 일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이제 피혁 제품. 피혁 제품 그 수출용, 그러니까 이 가죽 잠바를 만들어서 일본, 독일, 미국같이 외국에다 갖다 파는, 무역하는 회사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외국

11)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

에서 주문을 받아서 수출하는 업체. 무역회사. 성우통상[12]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어요.

옛 월곡동 공장 전경

●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곳이 성우통상인가요?

네. 그렇죠. 거기가 무역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은 군대 워커도 만들고. 소 잡은 가죽을 껍질을 벗겨서 염색을 하고 그걸 늘려서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도 시키고, 군화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런데였어요. 규모가 있으니까 공장이 아주 컸죠. 수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컸어요. 공장이. 거기서 이제 3년,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조광피혁이라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죠.

12) 월곡동에 위치했던 무역회사로 2024년 1월 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 **당시에 피혁공장에서 월급이나 복지 같은 것들은 기억이 나세요?**

제 기억으로는 월급으로 3만 원을 받았고 남자는 3만 원. 여자는 1만 5천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 남자는 다리미질을 했는데 이걸 '아이롱[13]사'라고 불렀어요. 그 기술을 배우니까 조금 더 주는 거죠.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철야를 시키면 새벽 4시까지 막 철야를 시켰어요. 당시는 새벽 4시까지 통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냥 머리만 붙이고 다시 나와야 하는 거죠. 근데 또 나 말고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으니 거기에 불평도 못하고 그냥 잠깐 쉬다가 또 출근하고. 복지라 할 게 없었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 그냥 먹을 수만 있고, 살 수만 있으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시기였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 제가 빠싹 말랐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요.

13) 공업용 다리미를 과거에는 '아이론(롱)'이라 칭하기도 했다.

● 성우통상의 위치는 기억나시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홈플러스[14]가 성우통상 회사 있는 쪽이죠. 영광교회[15] 앞이 조광피혁 공장이 있었고, 그러고 저기 지금 동신아파트[16]. 거기에는 피혁공장하고, 군납하는 군화, 염색도 많이 하고 해서 염색 공장이 거기에 모여있었죠. 나는 염색공장은 일은 안 해봤고 그냥 다리미질만 했지만은.

● 출퇴근 길은 어떠셨나요?

산동네니까 가차없죠. 저 위에서 내려와서 일하고 일 끝나고 다시 걸어서 올라가고. 산중에 있는 동네니까 걸어서 출퇴근했습니다. 일하러 왔다 갔다 하기에도 힘들고. 제일 힘든 것은 야간통행금지[17] 해제 될 때까지 작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먹고살려고 다 했어요.

---

14) 현(現) 월곡동 홈플러스(성북구 화랑로 76)

15) 현(現) 월곡영광교회(성북구 오패산로10길 27)

16) 현(現) 동신아파트(성북구 오패산로3길 17)

17) 야간통행금지는 치안상의 필요를 이유삼아 시행되었다. 해방 후 미 군정은 2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야간통행금지를 시행하였고, 1961년부터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1982년까지는 통상적으로 0시부터 04시까지 시행되었다. 사이렌 소리와 동시에 시작된 통금은 연령을 불문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거동 수상자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통금 해제시까지 구금되었다. 이 때 통금 해제와 동시에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을 내야만 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사모님도 일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일을 안 했어요. 애들 육아 중이라서. 나중에 그 집에서 재봉틀을 배워가지고 부업을 했죠. 집에서 뭐 인형 제품이나, 농구공 같은 거 쪼그만 거를 만들어서 부업을 했죠. 부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조금 미안한 것들이 있었죠.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한 점이 애들에게 미안하죠.

● 성우통상을 언제까지 다니셨나요?

한 3년,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보니까, 다리미질도 기술이니까 그 조광피혁이라고 거기서 이제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옮긴 거죠.

● 조광피혁[18]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성우실업하고 똑같이 다리미질을 했어요. 피혁공장의 전체 공정을 알려 드릴게요. 무슨 일이냐면 속가죽하고 겉가죽하고 다 따로따로 이걸 벗겨가지고 염색을 해서, 늘려서 말려 가지고, 아, 염색은 다른 공장에서 해와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 수 있게끔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걸 평당, 평당 이제 가로 30cm 곱하기 세로 30cm가 한 평인데 그 한 평에 얼마. 그래 가지고 몇 평인지 재서 무역부에서

18) 조광피혁은 1936년 4월 5일 성북구 하월곡동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되던 가죽(피혁) 원단 제조 및 가공업 회사이다. 1975년 사업확장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하월곡동 공장은 본사 이전 후에도 계속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폐쇄되었다. (출처 : 조광피혁 2022년 사업보고서)

구입을 해가지고 공장으로 넣어 주는 거죠. 그걸 재단을 해서 다리미질을 쫙 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 거죠. 저는 그중에 다리미질을 했던 것이고요.

● 이직하시고 환경이 조금 달라졌나요?

이제 경력직을 인정받아서 돈을 조금 더 줬던 거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똑같았죠. 하루에 8시간 근무인데, 기본이 그렇고 야근을 많이 했죠. 저녁 주면 이제 9시, 10시까지도 막 하는 거죠. 계속 일이 끝날 때까지. 공장이 이제 맞춰야 하는 기한 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못 맞추면 위약금을 엄청 내야 하거든요. 그거를 낼 수가 없으니까 야근 같은 거 시키고. 납품 날짜를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철야 작업을 많이 했죠. 거기서 이제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때는 반장을 시키더라고요. 책임자를 시키는 거죠. 아줌마들이 일한 거 뭐 검사도 하고 다리미질도 하고. 좀 일찍 끝내주면 좋은데 이제 늦게까지 시키면 입이 댓 발 나오는 거죠. 일하기 싫은데 시킨다고.

● 야근수당 같은 거는 없었나요?

야간 수당을 주긴 했죠. 그것 때문에 남아서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20시간 가까이 일을 시켜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불평할 처지가 못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이 "너 그만둬." 해버리면 사람은 많으니까. 그만둬버리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불평 없이 뭐 그냥 쭉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도 진짜 안 좋았어요. 좁고, 열악한 환경. 옛날에는 그냥 돈 벌려고 한 거지 환경을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근로자들 생각을 조금도 안 했던 거죠 그냥. 제가 책임자 할 때도 사람을 하나 잘라야겠다 하면 그냥 경리한테 "얘 얼마인지 계산해 봐." 하고 딱 그거 계산해가지고 주고 그냥 나가라고 하고 그랬어요. 노동법[19] 뭐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 조광피혁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쯤에 있었나요?

1공장은 지금 신동신아파트 자리에 있었고, 2공장은 영광프라자[20] 쪽에 있었죠. 공장이 한 개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만큼 규모가 컸다는 거죠. 저 신동신아파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게 이제 대근염직이라고 염색공장이 있었어요. 구동신아파트 자리에 해외섬유라고도 있었고요. 그쪽에 아예 공장이 다 모여있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 1동 주민자치 센터 앞에 순복음교회 자리는 중외제약 자리. 동덕여대 지금 기숙사 자리에 일양약품 자리고요.

19) 실제 1980년대에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합해도 한 해에 총 10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었고,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실제 노동 현장까지 적용되는데는 시간이 걸렸다.

20) 현(現) 성북구 오패산로10길 30

● 공장들은 언제쯤 사라진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이 많이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중국 쪽으로 전부 간 거죠. 거기서 가서 하다가 이제 거기도 인건비가 다 비싸지니까 그냥 기계를 다 주거나 팔고 몸만 나온 거죠. 동남아로 옮겨가거나. 그 시기가 제가 한 40~50대쯤일거예요. 시기상 90년대나 그 후쯤이 되겠죠.

● 당시 사진도 있으신가요?

있죠. 이 사진이 이제 80년대에 제 사진이에요. 빠싹 말랐잖아요. 힘들어서. 이거는 집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 사진 찍으니까 사이좋게 딱 찍었죠. (웃음)

여러 일을 다 해봤죠

● 조광피혁은 언제 퇴사하셨나요?

81년도쯤. 한 2년 정도 다니고 퇴사했어요. 처음 발을 들여놓은 데가 피혁공장이고 그러다 보니 계속 그쪽으로 전전하다가 이제 다른 일도 조금씩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을 조금씩 조금씩 했었죠.

● 그만두고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제 화물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야채 장사 같은 거, 과일 장사 같은 거 한 거. 또 그걸로 해물 장사를 하기도 하고. 그게 돈이 제일 잘 됐죠. 해물 장사 같은 거 할 때는 하루에도 한 50만 원씩 벌 때도 있었으니까. 멍게. 멍게 같은 거를 박스로 한 차씩 싣고 가서 파는 거죠.

● 혼자 하신 거예요?

아뇨. 뭐 몇 명의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 그룹이 이제 같이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상 가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그걸 이 동네에 와서 나눠가지고 같이 파는 거죠. 각자 물건을 가지고.

● 또 다른 기억나는 일은 없으세요?

아휴. 진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물건 떼다 파는 것은 기본이고 노동일이라 부르는 것들. 공장도 다니고, 인쇄도 해보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봤죠. 지겨워서 직업도 많이 바꿔보고 했는데 바꾼 직업이 전에보다 나아져야 하는데, 생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수입이 그거보다 못하게 되면 또다시 전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첫 발 들여놓는 곳이 중요하다, 이거죠.

● 많은 일을 하신 만큼 직업관이 확실하시네요.

제 신조는 죽는 날까지 일한다.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걔네는 자기들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사는 거죠.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신조를 지키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4부

살다 보니까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거죠

월곡4동 13통 통장

● 월곡4동 13통 통장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라 하면 전에 살던 우리 통에 전임 통장을 하시던 분이 살았어요. 예전에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한테 "이제 나 통장 그만두려고 하는데 해볼 의향 없느냐?" 이렇게 물어서 "아니 나 하기 싫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답을 했죠. 근데 전임 통장 하시던 분께서 동네 일 해보면 손해 볼 일은 없으니 해보라는 말에 설득이 돼서 하게 됐죠.

● 통장으로 얼마나 오래 활동하신 건가요?

한 90년대쯤부터 2000년대 재개발할 때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10년은 넘은 시간이죠.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통장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알고, 동네 사정도 많이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참 뜻깊은 시간이었죠. 시작은 우연히 하게 되었어도요.

월곡4동 동사무소(1993)

● 월급이 있었나요?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있었죠. 한 달에 그 당시로 통장 모임회비 공제하고 6만 원이 나왔어요. 연임이 가능해서 계속 계속 연임을 했었지, 2년인가 주기로. 이거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 돈을 적금을 넣어서 안 쓰고 계속 모으다가 이제 월곡동 재개발한다고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갖다가 썼죠. 그런 기억이 나네요.

● 통장 하실 때 임명장이나 표창장 같은 것도 받으셨어요?

가지고 있죠. 그거 구청장님한테 표창장 받은 거랑 임명장 받은 거랑. 이게 오래돼서 연도별로는 없어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사진은 없어도 상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위 촉 장

통장 위촉장

유공구민 표창장 수여식

●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통장 하면서요? 집식구하고 많이 싸웠죠. 그때 당시에 예비군이랑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쪽지를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개인한테 직접 다 줘야 하거든요. 적십자 회비도 걷어야 하고요, 그 당시에는 적십자 회비도 각 통으로 할당을 줬지요. 할당을 해줬는데 할당보다 더 넘치게 받아서 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예비군 쪽지 같은 걸 갖다가 전해주러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꽂아놓기만 하고 와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 경고장 있잖아요, 경고장. 이거는 직접 도장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까지 몇 번이고 찾아가지요. 직접 전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면 나도 계속 그 집을 몇 번씩 가야 본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거 때문에 시간 뺏기니까 집에서는 제발 통장 좀 그만두라고 했었죠.

민 방 위 대 원 연 명 부

통장 당시 민방위대원연명부

● 일도 바쁘신데 힘드셨겠어요.

일도 바쁜데 매일 민방위 쪽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가야하는게 통장의 임무였어요.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 되고 없으면 또다시 갔다가 저녁에 또 갔다가. 날짜가 지나면 벌금 처리가 되니까요. 날짜 지나서 갖다주면 왜 이제 가져다주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 참 옛날 추억이기도 하고, 고생도 많았죠.

● 좋았던 점도 있었나요?

좋았던 것은 뭐 이제 재개발할 때 재개발 관련해서 주민들 만나러 갈 때 인사하면 보통은 절대 문을 안 열어주지만, “월곡4동 13통 통장입니다.” 하면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도 통장이라고 해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알고 알아봐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대우도 해주고 그랬었죠.

통장 당시 13통 관내도

● 통장은 언제까지 하셨나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2000년대 재개발될 때까지 했어요. 그때 이제 행정체계가 바뀌면서 월곡3동, 4동이 월곡1동으로 합병[21]이 돼서 이제 통이 갈리니까 거기서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둔 거죠.

● 통장 퇴임 후에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월곡4동 13통 통장으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좋은 사람들과 소중한 순간들을 많이 나누었고, 일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스스로도 많이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나 후회는 별로 없어요. 그냥 옛날 사람들이 그립기는 하죠. 옛날 주민들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월곡동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예전 주민들이랑 풍경들이 그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1) 월곡4동은 2007년 12월 30일에 월곡1동으로 통합되었다.

봉사하는 정신으로 했어요

● **동네를 위해 이렇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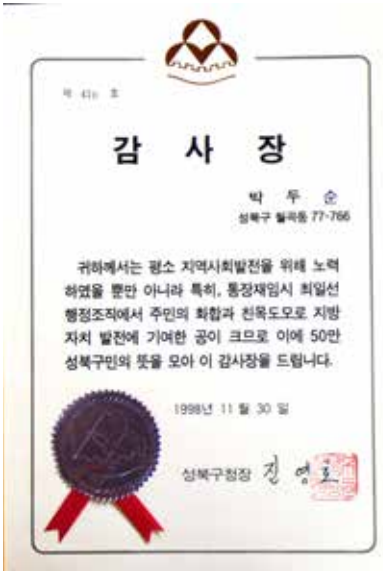
그러니까 뭐 동네 살다 보니까 동네를 위해서 하는 거죠. 동네를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거기에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냥 봉사로 하는 거죠.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통장같은 직책을 맡고 그러면 동네 유지[22]로 생각해주었던 것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웃음)

●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죠. 통장으로서도 많이 하고 제가 활동을 참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합니다. 자치위원회 분과장, 방재단, 사설 모임 중에 월곡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월곡계라고 계도 하고, 통장 했던 사람들 친목회 통친회, 부부가 오래 월곡동에 살았으니 부부 친목회도 있고 이런 모임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동네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도 많고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표 창 장

22) 마을이나 지역에서 명망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



감 사 장

박 두 순
성북구 월곡동 77-766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통장재임시 최일선 행정조직에서 주민의 화합과 친목도모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50만 성북구민의 뜻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1998년 11 월 30 일

성북구청장 김 영 호

표 창 장

박 두 순

위 사람은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특히 각종 주민계도 캠페인 및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여 주민화합과 살기좋은 지역을 조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01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장 고 윤 [illegible]

● 어떤 봉사활동들을 하셨나요?

기억나는 거는 월곡4동 새마을협회 직능 단체끼리 여름에 주기적으로 동네 연막 소독을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새마을협의회 할 때 한 건데 연기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경유를 넣고, 약을 타고 해서 그걸 태우면 이제 연기가 나와서 모기나 해충 같은 것들이 죽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면 동네 주민들이 막 대문을 열어놔요. 여기 좀 뿌려달라고 하고요. 애들은 좋아서 막 쫓아다니고. 근데 이게 뿌리는 기계 끝 쪽이 하늘을 바라보면 불이 확 붙어 버려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끝 쪽에서 불이 붙어버리면 깜짝 놀라고 했죠. 그때는 일회용 소화기를 들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조심조심 다뤘죠 엄청. 그거 연막 소독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 다른 활동들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23]을 하려다 그건 안 하고 방재단으로 들어갔어요. 92년도에요. 동네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마철에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같은 거 긁어서 파내고 비 오면 냄새난다고 뚜껑 덮어 놓은 거 물 빠지라고 빼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죠. 말 그대로 마을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죠. 지금도. 그리고 옛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수해 난 지역 가서 직접 수해민들 돕기도 하고 그런 봉사들을 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돕는 활동을 하고 그래요.

● 그 외에도 생각나시는 활동들이 있나요?

옛날에는 대통령 해외 나가도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길거리 나가서 국기를 흔들고 했어요. 새마을이나 방재단도 지금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활동들도 하고 그랬죠. 전에 직능단체 활동 하시던 분들이 지금도 활동 하시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걱정입니다. 세대 교체를 해야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직장, 또는 개인 사업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

23)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관련 개별 법에 의해 1989년 4월 1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진실·질서·화합을 3대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 문화적 국민의식의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공표하고 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당시 많은 비판을 받은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으로, 6월 민주항쟁 이후 관련 조직의 존속이 어렵게 되자 새롭게 조직한 관변단체이기도 하다.
(출처 : 민족문화대백과, 동아일보)

청소년유해환경 척결 운동사진

● 젊을 때는 마을 활동을 안 하셨나요?

아이고. 통장을 하기 전에는 먹고살기 바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20~30대 때는 그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오래 살면서 동네도 보이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살만해지니까 마을을 위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사람도 좋고 모임도 좋고

●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모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설 친목회나 통장 친목회처럼 모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많죠. 사진들도 보면 다 친목회 회원들끼리 놀러 간 거예요.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제가 없는 사진들은 제가 찍어준 사진들이죠. 통장하던 사람들하고 부녀회장들 그리고 새마을 회원들 같은 사람들이요.

친목회 단체사진

● 이런 모임들이 자주 모이거나 분기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은 나이가 많다 보니, 이번에도 놀러 가려고 했었는데 가다가 괜히 안전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지금도 총무를 제가 보고 있는데 놀러를 가고 싶기는 한데 참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해야 하고, 안전 문제도 있고요.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참 힘들죠. 모임에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조금씩 모임을 차츰 줄이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제가 살아온 게 다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임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동네를 위해 활동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람들과 만나고 거기서 봉사정신으로 같이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하나의 행복이기도 하고. 이제는 늙어서 그게 참 힘들지만요.(웃음)

5부

참 살기 좋아졌어

월곡동과 종암동 경관

달동네에서 아파트로

● 50년을 월곡동에서 살아오신 주민으로서 월곡동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많이 좋아졌다. 진짜로 월곡동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진짜 그 산동네가 재개발이 돼서, 그러니까 2단, 3단으로 깎아내고 해서 아파트가 생긴 거니까. 아파트 살면서 같은 단지 내에 살고 있는 옛날 원주민분들께서 행복한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정말 행복합니다.

● 교통의 변화도 체감하세요?

교통이 많이 좋아졌죠. 1980년대에 4호선이 개통돼서 어디라도 다 갈 수 있고 지하철에 다 연결이 되니까요. 또 6호선도 다 지나가고 월곡역으로 지나가니까. 두산[24]쪽이 역세권이죠 그쪽으로. 그 후로는 내부순환도로라고 도로가 개통돼서 더 좋아지고, 지금도 또 월곡역 쪽에 저기가 많이 밀리니까 동북선[25]이라고 하는거 그거를 또 만들고 있잖아요. 창문여고 쪽으로 지나가는 거기를. 거기에 역이 생기니까 또 동북선이 생기고. 집값도 더 나아질 텐데. 미아사거리까지 얼마 멀지도 않고, 엄청 가깝죠. 뭐.

내부순환로와 월곡동

24) 월곡두산위브아파트(성북구 오패산로 46)

25) 강북 지역의 철도 교통 음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노선이다. 1990년대에는 서울지하철 12호선으로 추진되었으나, 1998년 9월 해당 사업이 백지화된 이후 경전철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영업 거리는 12호선 시절보다 좀 더 길어졌다. 모든 정거장에 엘리베이터, 스크린도어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우이신설선과 동일하게 역무실, 매표소 등 없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 **예전에는 교육상의 이유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디로 가실 생각이셨어요?**

교육을 위해서 좀 잘사는 동네에 가고 싶었죠. 번화가 쪽으로. 동방고개 같은 쪽에 부촌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는 학군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내 쪽으로, 조금 더 발전된 번화가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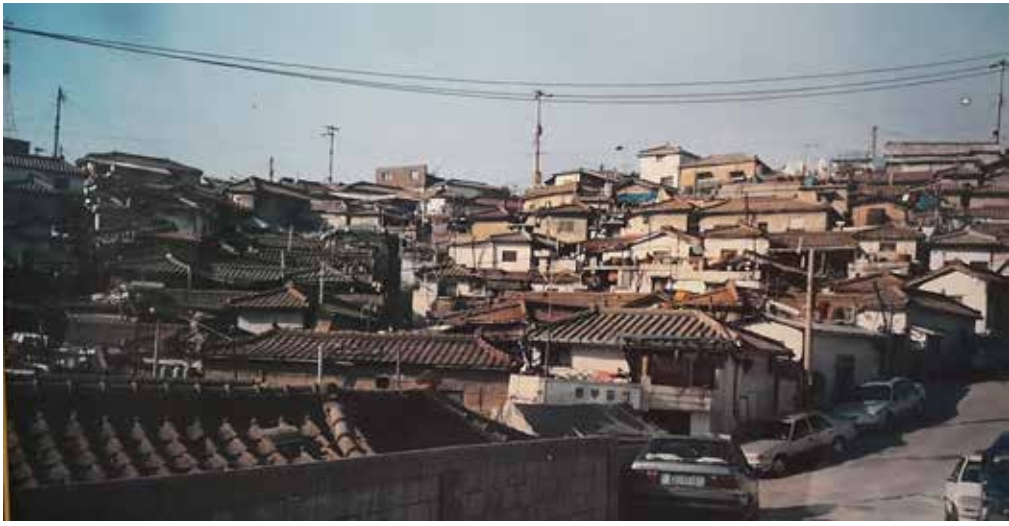
월곡동 재개발 이야기

● **월곡동 처음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재개발 얘기가 나온 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금방금방 됐어요. 그니까 제 생각에는 2000년도 이전에 얘기가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개발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추진이 돼서 빨리 재개발이 됐죠.

● 선생님은 재개발에 찬성하셨나요?

전체적으로는 찬성했지만 재개발이라는 게 다들 서로 이익 관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죠. 재개발한다는 거 자체는 좋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따라 이익이 갈리고 그렇게 하니까요.



재개발 전 월곡4동 전경

● 당시 기억이 자세히 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5평 이상이면 입주권을 하나씩 주는 걸로 돼있었어요. 근데 길 옆에 땅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게끔 돼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길 옆에 살았던 사람이 “안 산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산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파는 게 우선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했었죠.

● 재개발하면서 경제적 수준이나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겠어요.

그러니까(말이야). 생활 주거가 많이 좋아졌으니깐. 예전에 화장실 처마가 낮아서 고개 숙이고 나오고 그런 집에서 살다가... 예전에 살던 집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죠.

● 주위에 살던 분들은 다 같이 아파트에 입주하셨나요?

아니요. 한 10퍼센트 정도? 많아야 30퍼센트 정도? 그 정도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보통은 다 다른 데로 이사 가지. 입주하는 사람들은 10퍼센트나 뭐 그 정도죠. 입주권을 팔기도 하고 중도금 내지 잔액 지불이 힘들어서 못 들어 오는 사람이 많이 있었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있으니까. 밑쪽으로 내려간 사람도 있고 옆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멀리 간 사람도 있고 합니다.

● 선생님은 고민 안 하셨나요?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저도 생각 해봤죠. 나서 가족들이 아파트를 팔자고, 팔자고 했었어요. 근데 안 팔았죠. 처음에는 거기 42평짜리에 입주하면 그게 잘 팔릴 거 같아서 42평짜리 분양권을 받았어요. 거기에 입주를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서 이자를 많이 냈죠. 갖고 있으면 많이 오를 줄 알고. 그게 안되다 보니 부담이 많이 갔죠. 그 이자만으로 한 달에 거의 돈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대출받아서.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 그럼 지금도 42평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뇨, 아뇨. 그걸 팔았죠. 그거를 팔고 24평짜리를 샀어요. 둘이 사는데 그렇게 넓은 집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청소도 힘들고.

● 원래 살던 분들이 다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외부에서 이주 오신 분들이 많겠네요.

어느 지역이나 아파트는 그렇겠지만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역의 단체 같은 데도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자치위원회 같은 데도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같은 월곡동인데도 타 동네 같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데는 동네 부녀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방재단 이런 동네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몇 명 방재단에 데려와서, 제가 자치위원회 분과장이니까 분과 위원들을 좀 모셔서 들어와서 활동하시고 있죠. 지금 단장님으로 활동하는 분도 원래 군인인데 전역하시고 제가 단장 자리를 맡아 달라고 사정해서 지금까지 단장직을 맡고 있어요. 방재단 단장님으로 잘 활동하고 계세요.

표 창 장

박 두 순

2017년 3월 3일

국회의원 기 동 민

자율방재단 표창장

● 개발할 때 기억나시는 이야기가 더 있을까요?

건설사하고 이야기가 기억이 나죠. 예전에는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금액을 납득을 못해서 그거를 분양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볼까 해서 반대를 했죠. 나는 뭐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지만요. 조합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 그때 당시에 부담했던 돈이 얼마쯤 됐을까요?

한… 우선 25평짜리 내 집을 주고, 24평짜리로 들어가면 한 4천만 원 정도를 내야 들어가고, 40평대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1억 가까이 내고 들어갔어야 했죠. 그래서 그걸 이자가 그때만 해도 IMF랑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더 비싸서 이자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녁이면 그 돈이 생각나서 잠이 안 와서 깜짝깜짝 놀라서 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처럼 42평짜리가 가격도 안 오르고 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24평짜리로 내려가는 거죠. 마음 편하게.

● 건축되는 동안에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옛날 월곡시장 자리 바로 옆에 복개 공사한 데 옆에 그쪽에서 잠깐 살다가 거기서 이제 입주를 했어요.

인생을 돌이켜 보며

● 변화된 월곡동에 사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신가요?

아쉬운 점은 아니지만 제 목표가 제가 맡고 있는 자율방재단 단원들을 젊은 세대로 교체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단체에 안 들어오시는게 아쉽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예전에 동향 사람이 우리 월곡동에 살았었거든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그분이 저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예전에 그분이 복덕방을 했었어요. 그분이 저보고 맨날 어디 땅을 사라.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거 말을 안 들은 거. 그게 아쉽죠. 여기 생활하면서.

● 예상외의 답변이네요(웃음). 그 점이 많이 아쉬우셨나 봐요.

제가 배짱이 없으니까. 당시에 돈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 돈을 뭐 빌려서 내거나 그랬으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 분을 신뢰 못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못 믿었죠. 당시에는 전세살이를 했으니까요. 월세 감당하기도 힘든데 그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못했죠 결국에는. 저보다 나이도 있으신 분이고 그 아랫집에 사니까 맨날 골목에 돗자리 깔고 나와서 앉아서 얘기하고, 잠잘 시간까지 계속 거기 있고 그랬어요. 같이 골목 앉아서 밥도 비벼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재밌었죠.

●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무뚝뚝해서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평소에 잘 웃지도 않고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옆에서 같이 고생한 집 사람한테 너무 고맙죠.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못해줘서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이런 기회가 있으니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다고. 아들, 딸에게도 참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에필로그Epilogue

지리학을 공부하며 비록 태어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 머무르며 살고 있는 이 지역, 성북구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을 통해 구술자께서 살아오신 자취를 따라가며 새로운 시선에서 월곡동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기억을 되짚어 보며 생생한 삶의 공간이자, 긴 시간 사람들의 흔적이 축적되어 현재까지 이어진 월곡동의 또 다른 장소성을 살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신 오제연 교수님, 저희 팀을 이끌어 주신 우성진 연구원님,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두순 선생님, 그리고 항상 따뜻한 눈빛으로 함께 해주신 저희 팀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김세이

'사람의 인생 구술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구술사라는 분야를 접하게 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월곡동의 과거를 월곡동 통장을 역임하신 박두순님의 옛 이야기에 덧입혀서 어렴풋이 남아있는 내 어릴적의 기억 또한 슬쩍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술사라는 작업이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서툰 부분을 물어볼때마다 최선을 다해 설명해주신 우성진 선생님과 작업을 함께한 김세이, 오수현, 양만철, 유희나님과 함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을 품고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 오제연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김은숙

너무 재미있는 주민기록단 활동이었습니다. 저도 성북구에서 30년 넘게 살았지만 주민기록단을 하면서 성북구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더욱 뜻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양만철

성북구는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지역인 만큼,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주민기록단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역의 역사를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구술사였습니다. 지역성은 결국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집합적인 이해에서 비롯되는데,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험한 각기 다른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의 시공간을 다채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인

터뷰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곧 역사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신 오제연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몇 달을 따뜻하신 주민기록단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수현

역사학을 전공 중인 아들을 통해 우연히 구술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지식이 없는 저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 걱정됐지만 오제연 교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를 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이론을 배우고 실시하는 인터뷰 실습과 집중도 있게 해야하는 채록은 처음 해본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이 완성되어 뿌듯하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성북문화원 연구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유희나

이미지 출처

14쪽: 남윤중 촬영

20쪽: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22쪽: 남윤중 촬영

27쪽: 박두순 제공

32쪽: 박두순 제공

34쪽: 김홍윤 제공

36쪽: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38쪽: 박두순 제공

42쪽: 성북구청 제공

44쪽: 성북구청 제공

48쪽: 성북구청 제공

49쪽: 박두순 제공

54쪽: 박두순 제공

58쪽: 남윤중 촬영

60쪽: 성북구청 제공

61쪽: 박두순 제공

62쪽: 박두순 제공

63쪽: 박두순 제공

65쪽: 박두순 제공

66쪽: 박두순 제공

68쪽: 박두순 제공

69쪽: 박두순 제공

72쪽: 성북구청 제공

74쪽: 성북구청 제공

76쪽: 김홍윤 제공

78쪽: 박두순 제공

80쪽: 남윤중 촬영

반달과도 같은 천장산에 접한 월곡동은 동대문을 나와 원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과거부터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장소였습니다. 산지를 끼고 있는 월곡동은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많이 묻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월곡동의 옛 지명을 보면 율곡, 모래마을, 밤골, 배나무골 등 마을 이름만 들어도 참 정겨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곡동은 1970~80년대에 염색공장, 피혁공장, 작은 상가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예전 모습이 사라지고 재개발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두순 님은 같은 시기에 월곡동에 이주하여 월곡동 변화의 역사를 함께하신 분입니다. 변화하는 월곡동의 모습과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가득히 담겨있는 박두순 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03910
9 791198 599001
ISBN 979-11-985990-0-1
비매품